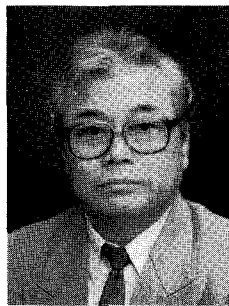


당뇨병과 눈의 합병증

조그만 눈의 이상이라도 전문의와 상의하고 진료받아야



김재명
경희의료원 안과 과장

당뇨병은 몸의 여러 곳에 많은, 심한 고장을 일으키는 질환이므로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조갈증이라고 했다.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찾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며 많이 먹는다고 했다. 당뇨병시 눈에 오는 합병증은 아주 심각한 경우는 눈을 멀게도 하는 나쁜 전신질환이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많아졌다고 해서 일명 문화병이란 별명도 붙어 있다. 일단 당뇨병에 걸렸다하면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므로 잘 다스려야 된다.

눈에 오는 당뇨병성 합병증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1. 당뇨병성 망막증

눈은 사진기와 비슷해서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란 것이 안구 뒤쪽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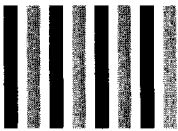
다. 여기에 물체의 모습이 비춰야만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당뇨병때는 이 망막에 병이 생긴다. 피가 터져서 망막에 짙고 심하면 안구 한가운데도 나무가 자라듯이 퍼져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실명상태로 된

다(증식성 망막염). 또 어떤 때는 망막이 뚝 떨어져서 (망막박리 사진기의 필름이 찢어져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너덜거리는 모양과 같음) 눈이 멀게 된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은 눈속 밖에 없다. 눈속의 혈관 파열상태를 보아서 뇌속의 핏줄에 이상이 있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당뇨가 심한 경우보다는 오랫동안 당뇨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둘 경우 혈관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터질려고 하는 혈관을 미리 찾아서 터지지 않게 레이저를 투사하는 방법 또



터진(피가 짙게 깔린 것)것은 어디서 터졌는지 특수검사를 해서 찾아내 같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안될 경우는 약물로 장기간 치료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해야 할 것은 핏속의 당의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된다.

2. 초자체 출혈, 혈관신생 및 증식성망막염

안구 한가운데는 사진기의 한가운데(까막 상자)에 해당하는 곳으로 맑고 투명한 젤리 같은 물로 차 있다. 이곳을 유리축인 물갈이라고 해서 유리체 또는 초자체라고 한다. 이 초자체에 망막에서 터진 핏물이 퍼지게 되면 물체를 볼 때 지장이 많다. 초기에는 눈앞에 까만 점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고(초자체 혼탁) 심해지면 이 핏물을 따라서 앞서 망막증에서 말한 것 처럼 나무 가지 모양의 살결같은 조직이 새로 생긴 핏줄과 함께 자라 들어온다. 이런 것은 당뇨병이 아주 심해졌을 때 생긴다. 이것을 증식성 망막염이라고 한다.

치료는 초기에는 망막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하고 초자체내에 핏물이 꼭차다 싶을 경우에 초자체를 다른 것과 바꿔주는 수술도 한다. 결과는 썩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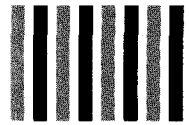
3. 당뇨병성 백내장

50세 갓넘은 분이 평소에 책을 볼 때 돋보기를 꼭 써야 했는데 별안간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될 때 본인은 젊어

져 간다고 몹시 좋아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당뇨병이 있다는 소식인 것이다. 우리눈의 애기동자(동공) 바로 뒤에 투명한 안경알(수정체)같은 것이 있는데 당뇨병의 초기에는 이곳에 옅은 백태가 끼게 되어 (백내장) 근시(가까운 곳이 잘보이는 눈)안이 되기 때문이다. 혈당조절을 잘하고 백내장 치료제를 한 일년정도 쓰면 더 진행하지 않는다. 백내장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심해져서 시력이 0.3 정도가 됐을 때는 약물로는 치료가 안된다. 혈당을 조절하고(내과 당뇨병치료 전문의사에게) 수술해야 된다. 당뇨가 있으면 대개 수술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일정수준으로 당이 조절되면 수술도 가능한 것이다. 당뇨병성 백내장은 노인에게서 오는 백내장(65세 이상에서 85%정도 발생) 보다 진행이 빠르다.

4. 조절쇠약 및 외안근 쇠약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뚜렷이 볼 때는 앞서 말한 수정체가 그 모양을 변화시켜서 사진기의 필름같은 망막에 물체의 상을 확실하게 맺도록 하는 것을 조절이라 한다. (사진기는 앞쪽이 앞뒤로 움직여서 똑바른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뇨병때는 이 조절작용이 빨리 안된다. 가까운 곳을 보다가 멀리 볼 때는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다가 조금 지나야 뚜렷이 보이고 그 반대도 똑같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며 쉬 피로가 온다. 또 우리 안구에는 사방을



보기 위해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6개 붙어 있는데 당뇨병때는 이 근육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놀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한다. 40세 이후 이런 증세가 있는 이는 꼭 당뇨검사를 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들 근육이 마비가 되는 수도 있다. 당뇨가 조절되면 그냥되도 잘 낫는다.

5. 당뇨병과 녹내장

우리 눈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면 풍선처럼 일정한 탄력성이 있다. 이것을 눈의 압력 즉 안압이라 한다. 안압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 압력이 높아지면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피가 눈에 오지 못하므로 눈속의 모든 기관은 이상이 생긴다. 특히 앞서 말한 망막(사진기의 필름에 해당)에는 물체를 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세포, 신경줄들이 많은데 이것이 죽는다. 한번 죽게 되면 되살아 나지 않는다. 이런 안질이 녹내장이란 것이다.

당뇨병시에는 이 녹내장이 오기 쉽다. 더구나 조상중에 녹내장이 있었던 가족에게서는 당뇨가 있으면 거의 녹내장을 동반한다. 눈병중 제일 나쁜 병중의 하나가 녹내장인데 녹내장의 여러 종류중 당뇨병으로 인한 녹내장은 광우각형 녹내장이라해서 거의 증상이 없이 슬금슬금 오기 때문에(보이는 범위가 조금씩 좁아짐-시야협소)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다. 당뇨병환자는 꼭 정기적으로(3개월에 한번씩) 안과검사 특히

안압검사를 하여야 한다.

눈의 조리개(홍채, 서양사람은 파랗고, 동양인은 흙갈색인 것)에 변화가 온다. 이것이 붓기도 하고 이곳에 쓸데없는 핏줄이 생겨서 (홍채혈관 신생성 녹내장) 급성 녹내장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초자체내 출혈이 흡수되면서 이 찌꺼기가 남아 녹내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녹내장인 경우 약물 치료를 평생 해야 되며 이래도 안압이 계속 높을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또는 수술요법을 해야 한다. 녹내장 치료를 잘 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검사를 해야 한다.

6. 기타 눈의합병증

우리 눈은 외부에 노출돼 있고 각막(시계 유리같은, 보통 검은 동자라 함), 수정체, 초자체 등에는 핏줄이 있으면 보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혈관이 없는 부위가 많다. 혈관이 없는 부위에는 강력한 세균이 침입하면 끔찍 못한다. 다행히 각막은 항상 균을 죽이고 쓸어내는 눈물이 있어 눈꺼풀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별탈이 없다. 그러나 당뇨병시에는 균에 대한 저항력이 몸전체 특히 눈에는 약하게 되므로 세균의 침입을 막기 어렵다. 각막(검은동자)에 약간의 상처가 있어도 균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 치료가 잘 되어도 나중에 백태가 남게 된다. 이 백태가 까만동자 한가운데 생길 경우에는 실명되게 마련이다. 당뇨병이란 진단을 일단 받은 이는 눈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